

대검찰청 뉴스레터

2019년 8월호

01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및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 및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02 TV 속 검찰

『검사내전』, 올 12월 JTBC 드라마 방영 확정!

『검사내전』, 올 12월 JTBC 드라마 방영 확정!

03 조금은 특별한 우리의 8월

18공채 신규 수사관, 드디어 시보 페다

18공채 신규 수사관, 드디어 시보 페다

04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검찰 특공대, 전국 피서 명소로 떠나라

검찰 특공대, 전국 피서 명소로 떠나라

05 뛰어날 檢 빼어날 察

1/4분기 사법통제 우수 검사

1/4분기 사법통제 우수 검사

06 행복한 회사, 행복한 검찰인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

07 여름휴가 사연 대모집

당신의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1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제42대 문무일 검찰총장 퇴임/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지난 7월 24, 25일 양일에 걸쳐 문무일 검찰총장의 퇴임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을 대표해 온 문 총장은 이제 어깨의 무거운 짐을 윤 신임 총장에게 넘기고 퇴임을 맞았습니다. 뉴스레터 제작자가 취재한 현장, 같이 보실까요?

문 총장은 24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약 15분 정도 비공개로 퇴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임 총장들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조용하게 28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문 총장은 퇴임식 대신 전날 검찰 내부 전신방 이프로스에 떠나면서 드리는 말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문 총장은 민주주의와 검찰의 관계를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퇴임 행사 후 마지막으로 2년 2년간 지켜와 주고 견여주신 우리 (검찰)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향후 미국에서 형사법 연구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25일, 윤 신임 총장이 정오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장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을 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임명장 수여 후 국립헌정박물관에 찾아 참배한 뒤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6시에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 총장은 직접 국문 위임사에서 형사법 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에서만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내비쳤는데, 그리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펼쳐질' 윤석열호의 향에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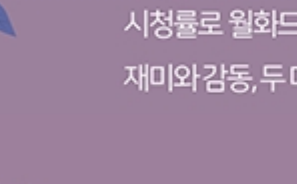


검찰

02 TV 속 검찰

『검사내전』, 올 12월 JTBC 드라마 방영 확정!

『검사내전』, 올 12월 JTBC 드라마 방영 확정!



검찰인이라면, 그리고 검찰에 관심 있는 외부 독자라면이라면 강웅 범무연수원 교수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1월에 출간한 이 책은 김 검사가 그동안의 검사 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펴낸 책입니다. 출간 후 인기는 뜨겁게 불타고, 2018년 조선일보 중앙일보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순위 100위 안에 드는 등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최근에는 이에 힘입어 특별 한정판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 '검사내전'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문이 술술~ 들려왔는데, 비슷한 예로 현직 판사 인문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쓴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이 2018년 JTBC에서 드라마화된 적이 있죠. 법원과 판사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다루어 호평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중 저자의 제작진의 레이더 망에 '검사내전'의 드라마 방영 확정 소식이 잡혔습니다. 올 12월에 JTBC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된다고 하네요. 소도시의 작은 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예정입니다. 제작팀이 지금 한창 로케이션 장소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이선진~정려원 씨가 주요연으로 출연을 고려 중이고, 조연급으로는 배우 정승우 씨가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김 검사는 드라마 제안을 받고 제작사에 완곡히 거절 의사를 전했다고 해요. 제작사 직원들이 당시 김 검사도 근무하던 인천지검까지 찾아와 설득했지만 그는 '검사가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 공평성에 빠지고 사육이 앞선다'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제작사는 대검 대법관실에 연락하는 등, 다각도로 설득에 나선 끝에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검사 쓴 글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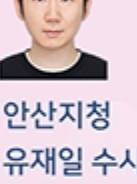
지금도 MBC '검법남녀 시즌 2', KBS '미스터 션샤인' 등 검찰 관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검법남녀 2'는 최근 이슈들을 떠올리게 하는 미스 조한석 사건 및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등을 잘 녹여내 9%대의 시청률로 월화드라마 1위에 인착했는데, 앞으로 제작될 '검사내전'도 검찰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줘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바라봅니다. 12월에만 나오~ 재빨리!

기사 참조: 중앙일보 2018. 10. 17. '별이 검사를 에세이' 『검사내전』, '별그대' 제작사 드라마로

03 조금은 특별한 우리의 8월

18공채 신규 수사관, 드디어 시보 페다

18공채 신규 수사관, 드디어 시보 페다



수원지검 김원 수사관

지난 2월 정식 발령을 받은 후 처음에는 매일같이 아근과 주말 출근을 반복하며 이 길이 제 길이 맞는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나니, 무거운 기록을 나르면서도 '오늘도 기소중지 한 건이 없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A 수사관이 검거되어 대공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선배님들께는 힘이 되는 후배, 후배에게는 명쾌한 답변을 주는 선배, 그리고 동기들과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지만 앞으로 '18공채' 하면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검찰의 든든하고 씩씩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검찰청 박세원 행정관

안녕하십니까! 대검 대법관실 검찰발송팀에서 시보 탈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막내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곧 시보가 끝나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음을 새삼 느낍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 정말 떨리고 긴장됐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함께 계시는 사무관님, 계장님, 선배님들이 항상 막내라고 많이 챙겨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 공무원이 되면 좀 더 분발해서 팀에서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하는 팀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지검 김원 수사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18년 8월 20일, 수사 근무를 시작하며 설렘과 긴장감을 품고 검찰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던 순간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1년간의 기억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맛있는 밥과 커피, 그리고 따뜻한 응원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동별거승이었던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채워주셨던 과장님, 계장님, 선배님, 실무관님, 검사님들, 동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8월 25일, '시보' 딱지를 떼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제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



안산지검 유재일 수사관

2018년 8월 20일, 설레는 마음으로 검찰청 첫 출근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심스레 내밀었던 첫걸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졌던 수사 6개월,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시보 6개월. 이렇게 1년을 꽉 채우고 드디어 정식 공무원이 됩니다. 그 1년 동안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시보 탈출하신 동기님들 모두 축하드려요!!

04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검찰 특공대, 전국 피서 명소로 출~발

검찰 특공대, 전국 피서 명소로 출~발

검찰청 문을 나서서 순간, 휘기ვე로운 뚝뚝~하고 습한 공기! 여기가 동남아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요즘, 우리에게 갓알한 것은 바로 시원~연한 계곡과 그 물에 발 담그고 먹는 수박! 여름휴가? 뉴스레터 제작자가 본 세원님(대위)을 찾아 피서하기 좋은 전국 계곡과 강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지도 보시며 레거 계획 한 번 세워보실까요?

철원~한탄강 래프팅
곳곳에 기암절벽과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한탄강, 래프팅 강을 즐기며 17km 푼코스 래프팅 어떠세요?

삼척~덕풍계곡
우리나라 최고의 오지 계곡으로 손꼽히는 오지 계곡. 계곡 따라 용소폭포도 있어 물놀이하기엔 최고랍니다. 수문도 낮아 피서엔 제격!

제천~청풍호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청풍호. 호숫길 드라이브만 해도 맘이 행복. 물리는데 카펫타고 수려한 경치를 보며 힐링하세요!

밀양~호박소계곡
밀양하면 얼음굴! 명성처럼 차가운 짜릿함을 선사하는 호박소입니다. 수상도 깊어서 피서엔 정말 퍼펙트하다고 하네요~^^

양산~배내골
영남알프스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계곡물! 평생 하나 빌려 물놀이 실패하다 낯장 한술 쬐~ 자연 천국이 따로 없었죠?

무주~세심대계곡
무주 하면 유명한 구천동 33경 중 한곳입니다. 근처에 펜션도 많고 계곡이랑이코는 평지기에 흐르는 물이 가족 단위로 놀기 좋아요~

사진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05 뛰어날 檢 빼어날 察

2019년도 1/4분기 사법통제(수사지휘) 우수 검사 선정

2019년도 1/4분기 사법통제(수사지휘) 우수 검사 선정

대검 형사정책단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사법통제(수사지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수 검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삼정제 사법통제 확립, 사경과의 협업·소통 능력, 사경의 수사요령 역량 여부 등을 따지는데, 올해 1/4분기에는 두 명의 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황주지검장은희 검사

장 검사는 사경의 내사결과를 건의한 번사 사건에서 재수사지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밝히는 등 지적 문헌 수 있었던 중대 범죄를 발굴해냈습니다. 또한 양장 청구기각사 기록을 검토할 때, 사경의 보완수사 지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 하나의 사건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또한 사경의 업무 진행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모습도 돋보였는데, 장 검사는 추측성 진술인 이는 노출수소 의혹 사건에서 범행과 관련 없는 장기간의 계약거래내역 추적 제한, 주거지에 대한 입수수색 제한을 통해 실질적 사법통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경과의 협업과 소통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가당한 보행권 편취 사건을 수사하며 범행수법에 착안, 계약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지휘해 숨겨져 있던 40여명의 피해자에 대한 여죄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포지검박세혁 검사

박 검사는 사경의 수사 요령을 시정할 점이 돋보였습니다. 매입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에서 횡령죄의 반례를 지적하며 영장 기각, 오토바이 절도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에서 목격자 진술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하는 등 부당한 입수수색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피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했고, 후속 입법조치로 올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사건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 검사 또한 사경과의 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는 추측성 진술인 이는 노출수소 의혹 사건에서 범행과 관련 없는 장기간의 계약거래내역 추적 제한, 주거지에 대한 입수수색 제한을 통해 실질적 사법통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경과의 협업과 소통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가당한 보행권 편취 사건을 수사하며 범행수법에 착안, 계약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지휘해 숨겨져 있던 40여명의 피해자에 대한 여죄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6 행복한 회사, 행복한 검찰인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중요 이슈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간호사 사회의 태풍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인의 73.3%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선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하고, 후속 입법조치로 올 1월에 근로기준법 개정률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지난날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보다 행복한 회사, 행복한 검찰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취지를 알리고 미리 예방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CASE 1.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함. "술자리를 만들었어!" "아직도 낯짝을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 등을 쓰게 함. **인정**

CASE 2.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승진을 못하고 있던 A 씨. 이번 근무 평가에서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으나 영업 실적 부진으로 B등급을 받자 상사가 고의로 자신의 승진을 막은 것은 아닌가 하고 괴롭힘. **불인정**

CASE 3.
회사에서 행사기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자기 자랑 준비를 강요. 복면가왕과 같은 경기자랑을 준비하러 나가거나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함. **인정**

CASE 4.
의류 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시시할. 담당자가 수차례 시간을 보고했으나 팀장이 계속 보임을 요구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불인정**

CASE 5.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주고,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지시함. 이후 책임을 지우고, 그를 직원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해당 직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결국 퇴사까지 함. **인정**

07 여름휴가 사연 대모집

당신의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월호 방문의 당첨자

김한영(수원지검) 문서주(서울중앙지검) 김미하(의성지검)
이윤미(청주지검) 이충준(대구서부지검) 마성원(김천지검)

이런 뉴스레터를 보시면서 받으신 느낌이나 의견 등 댓글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신 분 중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